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82.57 (-49.09)	710.52 (-18.32)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900 (-0.001)	1407.45 (+12.7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경기침체, 짝 막힌 내수 K푸드 훈풍타고 해외로

AI 열풍에 GPU 품귀... '슈퍼컴퓨터' 구축 차질

(그래픽처리장치)

식품업계 생존전략

〈중〉 글로벌 진출 러시

식품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해외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K-푸드 열풍에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전개해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라면 업계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대신 해외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1~10월 농식품 누적수출액 조사에 따르면, 라면 수출액은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중남미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9% 증가했다.

K푸드 열풍 타고 해외시장 개척 라면·주류 등 글로벌 매출 상승

삼양, 해외사업이 전사 실적 견인 오투기, 수출국 70개 나라로 확대 하이트진로, 소주로 80개국 공략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70% 육박하고 있어 해외 사업이 전사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심은 지난달부터 미국 2공장의 신규 라인을 가동하고 월마트 매대를 확대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무산에 수출 전용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생산역량 확보에도 나섰다. 삼양식품은 해외 판매법인을 늘리고 있다. 일본·중국·미국·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는 네덜란드 판매법인을 설립해 유럽 공략 의지를 보였다.

오투기는 라면 수출국을 65개국에서 7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며, 최근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류업계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해외시장 소주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이트진로 지난해 연간 해외 수출액은 1666억원이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중장기



베트남 후지(FUJI) 마트 내 하이트진로 단독 매대에 소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매출 확보를 위해 지난해 베트남에 첫 해외 공장 설립을 결정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과일 소주와 일반 소주 두 트랙 전략으로 현재 80여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류회사 'E&J 갤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소주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 전역의 주류 전문 판매점 약 1만곳에 '처음처럼 순하리' 등 소주를 입점시키며 판매 채널을 대폭 확대한 것. 소비자가 많이 찾는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에도 입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새로 살구'를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기 시작하며 글로벌 고객을 만나고 있다.

제과업계 '빅3'인 롯데웰푸드와 오리온, 크라운해태도 해외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출 비중이 24%인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매출 비중을 35%까지 늘린다.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 브랜드로 키우고, 매출 1조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리온은 올해 상반기 60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국과 2166억원을 기록한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계획했다.

내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온 크라운해태는 제과 기업 중 해외 매출 비중이 10% 이하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부, 예산 대폭 증액해 사업 재개 민간협력 안정적 공급망 확보 시급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불균형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국가 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6호기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업 재개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AI 기술 발전이 가속하면서 AI 반도체 공급 문제는 각국의 주요 현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던 슈퍼컴 6호기 사업은 AI 열풍으로 인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 급등으로 네 차례나 유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사업비를 기존 2929억원에서 4483억원으로 53% 증액하고, 서비스 개시를 2026년 초로 연기했다.

◆ 전 세계가 겪는 'AI 반도체 품귀'

AI 반도체 품귀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산업의 급성장하면서 각국은 반도체 확보와 자체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는 AI 관련 작업량과 컴퓨팅 수요가 2027년까지 연간 25%에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인앤드컴퍼니 기술 실무 책임자는

"GPU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특정 요소에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며 "GPU 수요 증가와 PC 교체 주기를 가속하는 AI 기기의 물결이 만나면 칩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자국 반도체 자급률 높이는 해외... 국내는 아직

한국이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인 화웨이, 알리바바 등을 통해 자체 GPU를 개발해 AI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현재 '선웨이(Sunway)', '텐허(Tianhe)' 등 자국 산 부품으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2500선 무너진 코스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2500 밀로 주저앉았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09포인트(1.94%) 내린 2482.5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32포인트(2.51%) 하락한 710.52에 마감표를 찍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4.7원)보다 8.8원 오른 1403.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

내수 회복 지연... 올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KDI, 경제성장률 예측치 2.2% 석달 전 전망 대비 0.3%p 내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2%로 바꿔 제시했다. 이는 불과 석달 전 전망 대비 0.3%포인트(p) 후퇴한 것이다.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늦어진 금리인하 시점 등을 하향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데 그칠 것

으로 내다봤다. 2%대 중반 도달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올해 8월 제시한 2.5%에서 0.3%포인트(p) 내렸다. 앞서 5월에는 2.6%까지 예상한 바 있다.

4월부터 9월까지의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GDP는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이른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0.2%)와 3분기(+0.1%)에는 성장세가 사실상 멎었다.

이날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올해 성장률을 조정하는 것은 내

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졌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KDI의 예측치는 기재부 전망인 2.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2.5%, 한국은행의 2.4%보다도 낮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홍준표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부부 목... 즉시 수사 의뢰하라" /사진 뉴스스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27일 정년 연장 정책토론회 개최

▲ 시코르스키 'CH-53K', 군대형헬기사업 도전장... "한국서 생산할 것"
▲ 조태열 "트럼프 정책 방향, 우리의 비전과 일맥상통"



▲ 복리 모두 조약 비준... 정부 "파병 공식화 가능성 주시"
▲ 한 총리 "내년 6월 간호법 시행... 의료 선진국 발돋움 디딤돌 될 것" /사진 뉴스스

골프연습 나선 尹, 트럼프와 회동 추진... “긴밀히 소통 중”

尹 대통령, APEC·G20 참석
남미순방 계기 트럼프 회동 예측
다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 재임중
정부, 회동의 형식·내용에 고민
첫 의제 방위비·北 비핵화 꼽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 회동을 하자고 밝힌 만큼, 올해 중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당장 이달 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골프 애호가’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과 원활한 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오전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선자 윤곽이 나온 지난 6일(현지시간) 조현동 주미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자 인수팀 거점인 미국 플로리다주 라라라고로

이동했다.

이같은 빠른 대처가 있었던 만큼 첫 회동 시기 역시 조율 중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회동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대면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대선 9일 만에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비격식 ‘친교 행사’ 형식으로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위협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지난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인선과 국내(미국) 정책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조속한 미팅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

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만약에 회동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외교를 이어왔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인 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고, 윤 대통령 역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한미일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 기간에 한일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생명연,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 후보물질 발굴

손미영 박사 “위 오가노이드 활용
신약개발 성공률 높일 수 있을 것”

국내 연구진이 위암의 위험을 6배 높이는 헬리코박터균 치료 물질을 발굴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항생제를 이용하던 기존 헬리코박터균 제거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위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부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위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를 이용해 헬리코박터균과 파일로리(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세포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치료하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점막에서 기생하며 위염,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및 위선암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감염률 역시 40~50%로 추정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도가 3~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생제를 이용하던 헬리코박터균 치료 방식은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의 점액에 존재하던 균까지 치료 약물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제균 치료만으로는 손상된 위 점막을 복구할 수 없고, 유익균까지 제거되는 부작용이 있어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3차원 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초기에 일어나는 위 점액세포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하게 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헬리코박터균이 체내에 침입 시 처음 자리 잡는 위 전정부(antrum)의 특징을 갖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3차원 위 오가노이드 제작에 성공하며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세포공포화독소(VacA)에 의한 변화를 관찰하여 위 점막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현상을 밝혀냈다.

또 오가노이드 모델과 생쥐 모델에서 인산화효소(kinase) 저해제인 MLN8054가 VacA 독소뿐만 아니라 미생물 감염으로 손상된 위 상피세포를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며 헬리

코박터균에 의한 위 손상 치료 후보물질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손미영 박사는 “그동안 헬리코박터균 관련 연구에는 주로 암 세포주나 마우스 모델이 활용되었는데 이번 위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로 그간 한계로 지적되던 공간 특이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며 “향후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인체 반응 예측을 통해 유효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9월 26일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바이오메디에어리얼’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사업,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식약처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세경 기자 selee@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뉴스1

현대건설 사우디 전력기술청 1조 송전선로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세대 송전기술을 앞세워 1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kV 초고압직류(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리야드에 위치한 PP14(Combined Cycle Power Plant 14) 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km의 초고압직류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쿠드미 지역에 인접한 369km의 1구간을 담당하며 완공 예정은 2027년 1월이다. 이번 건설되는 직류송전선로는 사우디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HVDC 2회선(Double Bi-pole) 송전선로 구조로, 전력량이 4000MW에 이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2일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우디에서 새로운 송전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세트 바로잡는다

공정위,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6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원하는 드레스 업체 선정하고 전화했는데, 플래너 없이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드레스투어 하려는데 개별적으로는 안받아주네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패키지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깜깜이 계약’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스드메’ 서비스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개별 업체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스텝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만~300만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큰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옵션은 필수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요금을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뒀다. 기본 제공하는 스텝

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 옵션을 뒤 이에 대해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필수옵션이 가격경쟁 대상이 되지 않아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텝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본격화... '한국판 스타링크' 만든다

스페이스X, 국내 통신사 협력
과기부, 3200억 규모 R&D 추진
KT, 자체 서비스 개발 방침



KT SAT은 미국 플로리다 현지시간 11일 케이프 케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위성 6A호를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발사 중인 무궁화 위성 6A호의 모습. /KT SAT

6G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 산업 경쟁이 국내에서도 본격 가시화된다. 최근 스타링크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통신사들도 협력을 통해 사업에 참여기로 했다.

특히 7년 만에 신규 위성 발사에 성공한 KT SAT(KT 셋)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와 결합해 국내 위성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한국판 스타링크' 만들기에 나섰다.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6년간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궤도 위성 산업에 국내외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 국내 사업 승인신청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국내 사업 승인신청 사업계획

서를 제출했다. 현재 스타링크는 100여 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X는 지난해 국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통신3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에서 스타링크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게 된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 가격은

349달러(약 48만원)이며, 월 이용료는 주저용 120달러(약 16만5000원)부터이다. 한국에선 내년 2월 중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사, 주도권 선점 분주

특히 KT는 자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위성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최근 KT SAT,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6G(6세대 이동통신) 및 궤도 위

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스페이스X등 막대한 자금력으로 저궤도 위성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력을 통해 KT는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과 지상의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신규 위성 발사에 성공한 KT SAT은 이를 저궤도 위성 서비스와 결합해 국내 위성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T SAT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너베럴 공군기지서 6A호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6A호는 KT SAT가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이다. 6A호는 작전통신망, 비상·재난방 등군·정부기관의 증가하는 위성통신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 경쟁력 확보 힘 신는다

정부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신는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32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

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1년부터 거듭 탈락한 후 세 번째 도전이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3199억9000만원(국비 300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한다.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탐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연결)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기술을 개발한다. 모든 기술은 6G 표준 개발과 연계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전장 판도 바꾸는 AI 무기

“전투 효율성 증가” vs “규제안 정립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AI 무기 효과 입증
군사 전문가 “과도한 의존 경계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떠오르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AI 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제안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AI 무기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미래 전쟁의 시범장'으로 불리고 있다. 12일 로이터,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살상용 드론의 타격 정확도가 AI의 도입으로 50%에서 올해 80%까지 상승했다. 기술 대부분은 미국의 국방 전문 AI 기업 '팔란티어'가 제공한 것이다. 이들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상용 위성과 정찰 드론이 수집한 적군의 위치 정보를 AI로 분석해 적군의 위치와 전황을 파악해 준다. 특

히, 팔란티어의 AI 정찰 드론 '세이커'는 최대 10km 범위에서 군인, 탱크, 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공격 대상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다윗(우크라이나)과 골리앗(러시아)의 싸움에서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한 것이 팔란티어 AI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AI 무기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AI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전세를 뒤집을 유력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군사 약소국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AI 기술 격차에 따른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 'AI 무기' 찬반논란

AI 무기의 도입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AI 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AI 무기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주요 논점이다. 만약 AI 무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사, 무기 사용자, 군 지휘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AI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AI 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AI 기술은 전투 효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전문가들 “국가 반도체 생산 역량 중요”

>> 1면 'AI열풍에 GPU...'서 계속

일본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은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엔비디아와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韓, 공급망 등 구조적 문제 직면

한국은 주요 GPU 생산 기업이 모두 해외에 있어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예산 증액만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셈이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술력 확보의 문제”라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한국의 슈퍼컴퓨터 구축이 지연된다면, 이는 곧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짐을 의미한다. 슈퍼컴퓨터는 기초 연구부터 산업 AI 적용까지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한 IT 전문가는 “AI 반도체는 미래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유상증자 갈림길... 철회 가능성 높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MBK, 장내매수로 지분 1.36% 확보
고려아연, 이사회서 돌파구 마련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선 가운데 MBK 연합이 장내매수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늘려가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확보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11일까지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전액 예치하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유재량 매매(CD)' 방식으로 매수를 요청해 고려아연 지분 1.36%, 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지분 1.36%를 추가하면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4일 완료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5.32%에 더해 6.68%로 고려아연 지분율을 높였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지분 6.68%에 기존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33.13%와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0.02%까지 더하면 MBK 연합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39.83%가 됐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최근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한국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매각하고 빠지면서 우호 지분이 줄어들었다. 현재 우호 지분 포함 지분율은 약 34%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중인 MBK측과 격차는 약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5%포인트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향후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MBK 측이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발송했으며 이달 1일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 만약 법원이 허가할 경우 임시주총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13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재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환율과 운산제련소 시설보수 비용 등으로 3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실적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3조2066억원, 영업이익 14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9.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5%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9% 늘고, 영업이익은 44.2% 줄었다. 고려아연은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시설보수 비용 반영에도 매출이 40% 가까이 늘어 높은 성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주담대 만기 40년서 30년으로 축소... 내 집 마련 '빨간불'

은행권, 만기 줄이고 한도 낮아져 대출 상품 만기 단축·상환 등 유도 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 보급자리론 등 정책 대출 필요성 부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한도가 낮아진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우리은행은 지난 9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기간을 유지한다. 이외 새마을금고는 다음주부터 최대 4년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대출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34세 이하인 경우 40년으로 늘렸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였다”며 “연말 전에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출상품을 제한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상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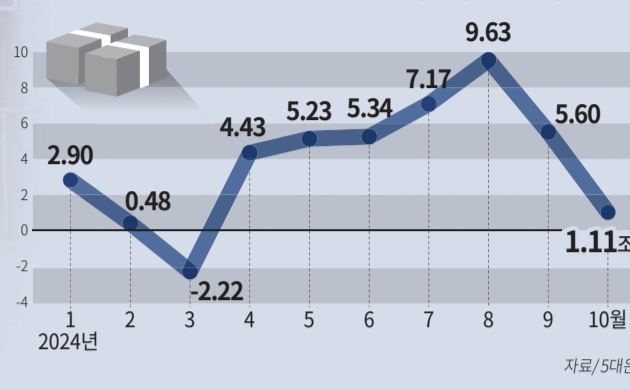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축소하는 이유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한달간 3조3000억원 증가하던 것에서 8월 9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연초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증가율 목표나 이후 수정된 목표(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넘어서 은행이 많다는 분석이다.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조원, 전월대비



연 상환액이 연 소득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대출만기가 줄면 연 상환액이 증가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연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 연 4%의 금리로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1755만 3416억원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의 35.11%에 해당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 만기만 30년으로 줄일 경우 연 원리금은 2005만1442원으로 늘어 연소득의 40.1% 해당돼 받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리까지 올려 보급자리론 금리와 비슷해진 만큼 조건이 맞다면 보급자리론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량 급감

대출 규제에 매수 심리 '꽁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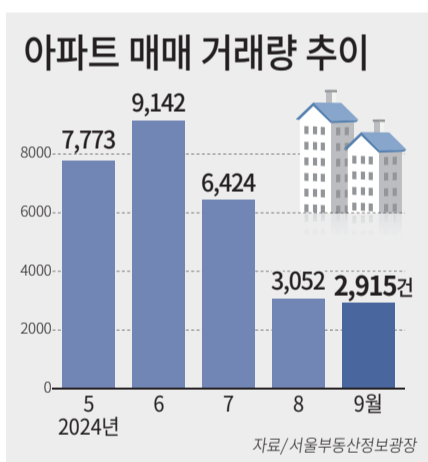
2단계 DSR 규제 이어 디딤돌 축소 완만한 조정 예상되나 매수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 장기 조정 가능성 높아

대출 조이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9월 실거래가 잠정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미 조정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2915건으로 올해 정점이었던 7월 9142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8월 6424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된 9월 3052건으로 거래량이 크게 꺾였다.

경기도 역시 한두달 늦지만 서울을 따라가는 분위기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7월과 8월 각각 1만5100건, 1만2948건에서 9월 770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앞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잠정 지수도 9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잠정지수는 -0.47%다. 오는 15일 공개될 확정치에서도 하락일 경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12월(-1.13%) 이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08%, -0.04%로 약세를 나타냈다.

금리인하보다는 대출규제라는 악재의 영향력이 더 컸다. 지난 9월 2단계 스

트레스 DSR이 시행됐고, 은행별로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한도와 만기 축소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졌다. 다음달 2일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마저 조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며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선풍 나서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서울 강남권 등 선호 지역들은 올해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거나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가격 부담과 심리적 저항감 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며, 경기·인천 지역도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디딤돌 대출 규제로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PC·CJ푸드빌, 美·동남아서 실적 상승 기대

>> 1면 '식품업계 생존전략'서 계속

회사는 지난 4월 충남 아산에 스낵 공장을 완공하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 수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도 글로벌 몸집 키우기에 한창이다.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중국·베트남 등 11개국에서 59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태국·브루나이·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에 추가로 진출 계약을 체결했다.

파리바게뜨는 특히 미국 가맹사업을 더욱 체계화·고도화해 글로벌 가맹사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시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푸레쥬르는 2004년 처음 미국에 진출해 2018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꾸준히 흑자 폭을 키워가고 있

다. 지난해 푸레쥬르 미국 법인 두 곳의 매출 합은 약 1055억원으로 해외 법인 매출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푸레쥬르는 현재 7개국에서 약 43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도 건립 중이다. 푸레쥬르가 미국 조지아주 홀 카운티 게인스빌에 약 5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공장은 내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시 연간 1억개 이상의 냉동생지, 케이크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기업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여파로 인한 국내 사업의 아쉬운 성적을 해외 실적으로 만회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큰 동남아 시장이나 소비구매력이 큰 북미 시장 개척에 나서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사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도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DI “수출, 유일한 성장 견인”

>> 1면 '내수 회복 지연'서 계속

KDI의 2%대 초반 예측은 이달 11일 발표된 금융연구원의 수정 전망치(2.2%)와 같다.

향후 정부를 비롯해 이들 국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하향조정도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앞선 수치들은 8~10월 사이 제시돼, 0.1%에 그친 3분기 성장률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3%, 1.6%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의 경우, 역성장(-1.8%)을 점쳤다. 반면 수출은 8.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GDP 성장률에 대해선 2.0%를 제시했다. 이 역시 기존(8월 전망 2.1%)에 비해 내려 잡은 것이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반영되면서 (내년) 수출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도 수출 증가 폭이 올해(+8.8%) 대비 크게 둔화(+1.8%)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앞서 OECD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IMF와 ADB는 2.2%, 한은은 2.1%를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日 JSR, 반도체 공정 핵심소재 韓 생산 본격화

산업부, 메탈포토레지스트 기공식 한국서 'EUV 핵심 소재' 생산 착수

글로벌 반도체 소재 기업인 일본의 JSR(Japan Synthetic Rubber)사가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핵심 소재 생산거점을 국내에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JSR사의 메탈포토레지스트(Metal Oxide resist, MOR)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

했다고 밝혔다.

JSR는 1957년 설립 이래 현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다. 국내에는 지난 2003년 충북 오창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첫 진출한 이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JSR은 기존에 국내에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용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착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딛고, 비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든 도전과 꿈이, 가능성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AI 반도체부터
에너지 설루션까지

SK가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길이 되겠습니다

SK



INTEGRATED
SUSTAINABILITY
DIGITAL PLATFORM
GREEN TECHNOLOGY
ENERGY TRANSITION
CARBON MGMT
ADVANCED MATERIALS
INDUSTRIAL TRANSITION
SMR HYDROGEN·COMO
AI SERVICE PLATFORM
BIO·AI·BATTERY
ENERGY SOLUTION·HARDWARE
FUTURE

민주당, 李 선고날 대규모 집회 예고 국민의힘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野,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 등
1심 선고 앞두고 ‘李 무죄’ 호소 총력
與, 긴급대책회의 열며 적극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된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 혁신회의가 지난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원인이 지난 11일 오전 8시 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갑박 무력시위’라고 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법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반도체 R&D 인력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완화해야”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AI·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서 고려해야
김문수 고용부 장관 “올바른 방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이 전날(11일)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AI(인공지능),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때 연구분야나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 TSMC나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이 부분을 예외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며 “노

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법안은 검토해야 하지만 (제외) 폭을 너무 넓게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안된 것은 노사 양쪽에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꼼수악법 막아낼 것”

민주당, 내일 본회의 제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날치기 강행 처리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농단”이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법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 특검법 수정안 추진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 국민께 사과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얇은 꼼수가 아니라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홍 기자

野,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층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였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칼라 이그젠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5대은행,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 9500억... 입주자 발동동

입주 관련 대출만 최소 3조 예상
은행 잔금대출 한도 턱없이 부족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보수적
입주자 대출경쟁 치열해 질 듯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모습. /뉴스1

5대 시중은행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옛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도가 적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올파포 잔금대출 한도가 95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입주 관련 대출만 최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취급을 확정했다.

잔금대출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해주는 대출이다. 은행이 시행사나 조합과 협의를 맺고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 차주가 대출 조

건을 비교해 은행을 선택한다.

중도금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 부채,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잔금대출 금리는 연 4.8%, 한도는 3000억원으로 취급한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저 4.641%에 한도 3000억원, 농협은행 최저 금리 4.8%에 한도 2000억원, 우리은행은 한도를 500억원을 정했지만

금리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초부터 4.8% 금리에 1000억원 규모로 잔금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연내 시행 여부는 미정이다.

둔촌 주공 잔금대출 취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시중은행들이 모두 한도 내 제공 방침을 정했지만, 한도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관련 대출 규모가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한도가 95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실제 한도는 8500억원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은행권 입장에서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부터 신규 대출액이 발생하면 총량을 맞추기 어렵고 실패하게 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결국 낮은 한도로 인해 올해 입주자들의 대출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은행권에서 한도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총량을 늘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의 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모든 세대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비상제동장치 할인특약

삼성화재가 고령자 비상제동장치 장착 할인 특약을 내놨다.

삼성화재는 12일 업계 최초로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실버(고령자) 비상제동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 신설된 특약은 오는 12월 21일 이후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비상제동장치는 도로에서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질 때 운전자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예방하는 운전보조 기술이다

해당 특약으로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가 감소할 전망이다.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를 평균 2.7% 할인해 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업계 최초 선보여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다.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인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안상미 기자

/김주형 기자 gh471@

지방금융도 밸류업 시동... 주주환원 40~50% 추진

3대 지방금융, 중·장기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확대 통해 기업가치 제고

지방금융지주가 '밸류업' 목표를 공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금융기관의 기업 가치 평가에 수익성과 더불어 주주환원이 주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가운데, 각 지방금융지주는 40~50%의 주주환원율을 중·단기 목표로 제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는 3분기 실적 공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금융지주는 중·단기 경영 전략과 함께 40~50%의 주주환원율 목표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올해 시범 도입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밸류업(국내 기업가치 저평가 현상 해소)'을 위해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투자정보보고서,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경영사항공시 등

기존의 보고서 및 공시 자료에 산재한 주요 지표들을 한데 모아 공시한다.

각 지방금융은 권고 기준에 따라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경영지표를 명시하고, 중·단기 달성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주주환원율 목표치도 공유했다.

BNK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6.4% 수준인 ROE를 오는 2027년까지 해외 금융기관과 비슷한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주가 대비 25%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어 목표 CET1은 12.5%, 초과분에 대한 주주환원율은 50%를 제시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한 자산규모 대비 낮은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BNK금융의 CET1은 이미 12.3% 수준인 만큼 이른 시일에 직접적인 주주환원 확대에도

나설 전망이다.

DGB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6.7% 수준인 ROE를 오는 2027년까지 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신·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대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목표 CET1은 12.3%, 주주환원율은 40%로 제시했다. 이는 시중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영업망 확대를 통해 수익 확대를 꾀하는 한편, 악화했던 비은행 부문 수익률을 빠르게 회복해 기업가치 상승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DGB금융은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JB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12.1%였던 ROE를 향후 15%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69% 수준인 PBR을 외국은행 수준인 100%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분기 배당을 위한 CET1 수준으로는 13%를, 주주환원율

목표는 50%를 제시했다.

앞서 JB금융이 분기 배당 도입 및 높은 수익성 지표를 바탕으로 밸류업의 수혜를 크게 본 만큼, 현재의 수익성 개선·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유지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지방금융지주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금융주가 대표적인 '저평가주(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주식)'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와 3대 지방금융지주의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평균 43.2%에 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주는 외국 금융기관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 및 ROE를 이유로 저평가된 경우가 많다"라며 "밸류업 정책에 따라 각 금융지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고, 이에 특히나 주가가 낮게 형성됐던 일부 지방금융지주는 기업가치 향상의 여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asj1231@

국토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

친환경차·심야운행 화물차 대상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중

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인만큼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물산, 4000억 규모 데이터센터 수주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

삼성물산이 이시스자산운용이 개발하는 경기도 안산 데이터센터 투자와 건설에 참여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이시스자산운용이 경기도 안산에서 개발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인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을 4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시스자산운용은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괄목할 만한 실적과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내 대표적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다.

이번 프로젝트는 1만1795m² 규모의 안산 반월 산업단지 부지를 재개발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수전용량만 40MW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수전 용량은 데이터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한다.

/안상미 기자

/김주형 기자 gh471@

韓 도움 언급한 트럼프... 조선·방산업계, 신규수주 기대감

트럼프, MRO분야 등 협력 요청
국방비 확대 예상... 시장 진출 기회
일각선 단기적 수혜 제한적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방산 분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미국 존스법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미군 현대화'를 내세웠다. 이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MRO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모습

/HD현대중공업

해군의 MRO 예산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업체에 일감을 주면 태평양 함대의 비전 투함이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유로는 대만과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중국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꼽힌다. 또한 미국 내 조선업은 높은 생산 비용과 인건비, 저하된 기술력으로 인

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내세운 존스법으로 기술이 쇠퇴한 점도 한국 조선업에 손을 뻗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존스법은 지난 1920년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하며 이들 선박은 미국이 만들고 소유·운항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조선업계에서는 존스법이 개정되어야 국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존스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의 방산 분야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소가 미국 내 거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설사 미국에 거점이 있더라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있는 한 최첨단 무기를 발주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셰일 오일에 대한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된 에너지원의 수출·운송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조선소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LNG운반선이 에너지 수송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시장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조선사들에게 의미가 있다"며 "우방국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쌓이면 제약이 있던 방산 시장에서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는 현대차가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우수 엔지니어 평가 프로그램이다.

이번 2024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에는 전국 직영 하이테크 센터 엔지니어 79명 및 블루핸즈 승용 엔지니어 486명이 참가했으며,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28명(직영하이테크 센터 20명, 블루핸즈 승용 8명)을 대상으로 현대차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에서 10월 29일과 10월 31일에 2차 실기 평가가 각각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기

'일렉트로니카 2024' 참가

삼성전기가 독일에서 전자 부품 기술력을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독일 뮌헨에서 오는 15일 까지 개최되는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2024'에 참가해 차세대 전자부품 기술력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는 3000개 이상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이 참가하고, 8만명 이상 방문하는 세계 최대 전자 부품 전시회다.

삼성전기는 AI/서버용 MLCC/FCBGA, 전장용 MLCC/카메라모듈 등을 소개한다.

삼성전기 장덕현 대표이사도 직접 전시회장을 찾아 고객과 소통하며 기술 동향과 미래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장사장은 스마트폰이 주도해온 시장이 EV·자율주행, 서버·네트워크 위주로 변화되고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에너지 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부품과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아우디코리아

'Q6 e-트론' 사전계약

아우디 코리아가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국내 공식 출시 전 프리뷰를 통해 한국 시장에 최초로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12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하는 중형 전기 SUV Q6 e-트론은 인상적인 주행성능 및 충전, 향상된 효율성이 돋보이는 '기술을 통한 진보'를 완벽히 보여주는 프리미엄 순수 전기 모델이다.

차체는 전장 4771mm, 전폭 1939mm, 전고 1648mm로 1회 충전 시 최대 641km(WLTP 기준)의 주행이 가능하다.

국내 출시가격은 8000만원 초반에서 1억원 초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전계약은 전국 아우디 전시장과 아우디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텐스토렌트 협업... 칩렛 등 반도체 역량 강화

조주완 사장, 짐 켈러 CEO 회동
"차별화 경험 제공하는 공감지능 구현"

LG전자가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역량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과 협력하며 AI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LG전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를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LG전자 주요 경영진과 데이비드 베타 고객총괄책임자(CCO) 등 텐스토렌트 경영진이 함께 참석했다.

LG전자는 AI를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하고, 고객과 교감하는 AI를 구현하는 것을 회사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협력도 미래 사업에서 AI 기술을 앞세워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LG전자 조주완 CEO와 텐스토렌트 짐 켈러 CEO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다. /LG전자

추진된다.

텐스토렌트는 개방형·저전력 반도체 설계자산(IP)인 RISC-V(리스크-파이브) CPU(중앙처리장치)와 AI 알고리즘 구동에 특화된 IP인 텐식스(Tensix) NPU(신경망처리장치)를 활용해 세계적인 고성능 컴퓨팅(HPC)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양사는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

에 발맞춰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칩렛(Chiplet) 기술 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칩렛은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로 고성능 반도체를 다양한 용도에 맞게 구성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각자 보유 중인 반도체 IP와 여러 기술을 활용해 AI 가전부터 스마트홈, 모빌리티, 영상 관련 서버용 프로세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협업 기회를 찾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립해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주완 CEO는 "텐스토렌트가 보유한 AI 역량과 리스크파이브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감지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켈러 CEO는 "LG전자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 리더로, 뛰어난 SoC 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사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AI 가전과 스마트홈(가정자동화) 분야뿐 아니라 모빌리티(교통수단)와 커머셜 등에서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SW)와 알고리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AI 반도체를 개발해 온디바이스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SoC(시스템온칩)센터를 주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을 핵심 기술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차별화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하는 올레드 TV 전용 반도체 '알파11 AI 프로세서', 가전 전용 AI 반도체 'DQ-C'를 비롯 AI 반도체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에 128건 특허기술 무상이전

이미지 처리 장치·방법 등 기술나눔

삼성전자가 85개 중소·중견기업에 128건의 특허기술을 무상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6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까지 총 4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672건 기술을 1887개 기업에 무상이전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요 특허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심박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에 기초해 목표지까지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

로 추천 방법', 스크린을 주시하는 사용자 안구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TV의 RFID 태그에 단순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장치에서 외부 광원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 광원의 종류를 검출하고 그 광원의 중

류를 근거로 영상신호의 화이트 밸런스를 제어, 정확한 색 재현을 구현하는 '광원의 특성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장치 및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술나눔 참여 기관들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기술나눔을 위해 6808건의 기술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210건의 특허를 673개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이통 3사, AI 매출 비중 확대 가속 해외시장 진출로 AICT 기업 전환

AI·ICT 융합으로 차별화 추구

SKT, AI 분야 10.5조 매출 목표
KT, B2B 서비스·클라우드 강화
LGU+, AI 사업에 3조 투자 계획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글로벌 AICT(AI와 ICT의 결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통3사는 올해 인공지능(AI) 투자를 본격화한 가운데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공히 하고 글로벌 AI 사업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 “AI 사업 성장 주효”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24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으로 ‘1조원 릴레이’를 이어간 것이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533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1% 늘었다. KT도 44.2% 증가한 4641억원을 벌어들였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246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이번 호실적은 전사적 AI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주효했다. 그간 통신사는 본업인 유무선 사업이 시장 포화 상태에 이르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본격 뛰어들며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AI 사업이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609억원을 기록했다. KT의 클라우드 및 IDC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KT클라우드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2070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3분기 기업 인프라 부문의 IDC에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9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AI 수익화 본격, 글로벌 빅테크 기업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M360 APAC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T

과 ‘맞손’

이에 이통사의 AICT 전환을 공공히 하고 AI 수익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해외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SKT의 AI 목표 매출은 2030년 10조 5000억원이다. 전체 목표 매출 30조원 중 35%를 AI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SKT는 람다(클라우드 서비스), 퍼플렉시티(생성형 AI), 엔트로픽(생성형 AI) 등과 공동 사업을 위해 협력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국내 지역 거점에 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하고, 1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소버린 AI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SKT는 연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DC를 개소하고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GPUaaS를 출시한다. 람다와는 서울 가산 데이터센터로 AIDC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고, 이를 엔비디아 GPU 기반 AI 데이터센터로 변경해 12월 개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체 AI 개인비서 서비스인 에이닷을 기반으로 내년 북미 시장에서 AI 에이전트 사업에 도전한다. 올해 비공개 베타테스트를 진행한 뒤 내년 북미 지역에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AI B2B(기업의 거래) 서비스와 클라우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AI

CT 중심 사업구조 혁신을 꾀한다. 향후 ▲통신 ▲미디어 ▲네트워크 ▲IT 등 각 사업분야의 구조적 혁신으로 B2B, AX(인공지능 대전환)에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I·IT 관련 매출 목표는 2028년 3조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6%에서 4년 내 1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KT는 지난 9월 해외 빅테크 MS와 협력하고 AICT 중심 사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KT는 MS와 AI, 클라우드, IT 분야에 협력하고 ▲AI 솔루션 ▲소버린 클라우드 ▲AX(AI 전환) 전문기업 설립 등을 공동추진기로 했다.

장민 KTCFO 전무는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이행 여부 등을 자본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억원씩 누적 3조원을 AI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AX 서비스로 매출 증가를 이끄는 동시에 구글과의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기간간 연결 서비스에 구글 AI 기술을 접목하면 홈 에이전트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AI 의시어를 통해 AI 통화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오션, 트럼프 ‘韓 조선업 협력’에 기대 ↑

미국 MRO 두번째 수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표명한 이후 첫 낭보가 한화오션에서 전해졌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추가 수주하며 첨단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새로운 이정표를 내놨다.

한화오션은 12일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1994년 3월 취역한 유콘함은 전장 206m, 전폭 29.6m로 배수량은 약 3만1000톤에 달한다. 한화오션은 내년 4월까지 함정 수리를 마치고 미국 해군에 다시 인도한다.

한화오션은 앞서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의 MRO 사업 수주에 이어 세 달 만에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K-해양방산의 새 역사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미국 해군 7함대 군수지원선

터 싱가포르사무소에서 발주한 MRO 2건을 모두 수주한 것이다. 이는 한화오션의 함정 기술력이 미국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능력을 잘 안다. 선단 수출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은 물론,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윌리 쉬라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함정 MRO 사업 분야에서 미국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전력 사용 줄이는 6G 네트워크 기술 실증

LGU+, 전기·광 신호 변환 최소화

LG유플러스가 6G 시대 핵심 네트워크 기술 중 하나인 ‘전광형(AI-Photonics)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실증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인피네라, 주니퍼네트웍스와 함께 ‘전광형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기술을 실증했다. 이 기술은 전기신호와 광신호 간 변환을 최소화해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전송에 소요되는 전력을 저감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폭발적인 트래픽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자체 제작한 ‘6G 백서’를 통해 6G의 비전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환경 변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칩셋에서부터 단말, 네트워크 장비, 인

프라 시설, 주파수까지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설계와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통신사업자들은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전송망에서 능동적으로 전력 사용을 제어하는 기술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등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송망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전송 기술이나 전력 사용을 줄인 소자 구성을 채택하는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전송 기술 측면에서 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전광형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연구했다. 전송망 장비 구조에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부분인 전기 신호와 광신호 간 변환을 최소화해 전광형 장비 소자로 망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LG유플러스는 6G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구남영 기자

“가스터빈 서비스 핵심기술 100% 국산화”

두산에너지빌리티, 韓 중기 협력
7F 가스터빈 서비스 진출 박차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손잡고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인전복합화력 가스터빈 8기에 대한 케이싱(Casing)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기존 로터, 고온부품 공급에 이어 이번 케이싱 교체공사까지 수주하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인정받았다.

케이싱은 고온, 고압, 고속으로 운전하는 가스터빈의 뒷개 역할을 하는 기기로, 제작은 물론 설치 시 고난이도



지난 2019년 9월 두산에너지빌리티 직원들이 가스터빈 초도호기 최종조립을 위해 로터 블레이드 케이싱에 설치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기술력이 필요해 그 동안 해외 가스터빈 원제작사들이 주로 수행해왔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번 대규모 케이싱 교체공사를 따내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과 기저수익을 담보하는 리커링(Recurring) 비즈니스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케이싱 교체 공사에 요구되는 설계, 소재 제작 및 가공, 설치 등 전 과정을 13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행하며 관련 기술을 100% 국산화 할 계획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미 17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로터 수명연장, 고온부품 공급 등 가스터빈 서비스 핵심 기술을 국산화 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이번에 수주한 모델은 해외 제작사의 7F(150MW급) 가스터빈이다. 7F 가스터빈은 전세계에 900기 이상 공급됐고, 이중 650기 이상이 미국에서 운전되고 있다. /서현정 기자 hyeon@

‘티메프 사태’에도 NHN, 매출 6084억 달성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6.4% 증가

NHN이 ‘티메프 사태’로 손실을 겪고도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NHN이 12일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608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게임, 결제/광고, 기술 등 전 사업군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영업이익은 티메프 사태로 미회수채권의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반영돼 1134억원 손실을 냈다. 다만, 일회성 대손상각비를 제외할 경우 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별로는 ▲게임 부문은 전년 동

기 대비 2.1% 증가한 1125억원 ▲결제/광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26억원 ▲커머스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5% 오른 610억원을 기록했다.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해 1027억원을 달성했다.

NHN은 적극적인 추가부양 의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의 배당을 실행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매입분 전량을 2025년 연내 소각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311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이날부터 약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에 나선다. /김서현 기자 seoh@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코스피 떠나는 국내투자자... 美주식·가상화폐 거래량 급등

뉴욕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경신
테슬라 보관액, 179억달러 달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올해 최고치보다 147.31% 늘어

#. A씨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500만 원을 환전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에 달하는 시점이었지만 환전을 망설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00만원 중 370만원은 코스피에 상장된 B동박기업을 '손절(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해 지킨 자산이다. A씨는 2년 동안 B동박기업 주식이 오를 거란 기대를 했지만 주가는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2일 장중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국내 주식이 눈에 띄게 오를 거라는 희망고문에 기댈 수는 없다"고 판단해 전부를 매도했다. 32%가량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환전한 3563달러를 전 채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가상화폐 투자와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국내 개인투자자 이미지.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49.09포인트(1.94%) 하락한 2482.5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중가 기준으로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

은 8월 5일 '블랙먼데이' (종가 2441.55) 이후 3개월 만이다.

반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 덕분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만4293.13포인트로 0.69%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6001.35포인트로 0.1% 올랐으며, 나

스닥 지수는 1만9298.7포인트로 0.06%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급등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한국에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보관액은 179억 592만달러다. 이는 역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관액 최고치다.

테슬라에 투자 중인 한 개인투자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는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며 "테슬라가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외에도 급등세를 보이는 가상화폐(코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197억 6009만달러(약 27조7570억원)로,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6일 기록한 79억 9007만달러보다 147.31%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선 이후 코인 투자를 시작한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처럼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로 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수익률 증가 속도를 보니 손실을 본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모으기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150억원을 돌파했고, 일주일만에 50억원가량 투자 규모가 증가하며 현재 누적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포모 현상(FOMO,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면 거래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새내기株 급락·상장 연기... IPO 시장 한파

이달 상장한 공모주 7개 중 6개
상장 당일 공모가 하회... 부진 양상
SGI서울보증보험 등 일정 연기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 IPO를 준비하던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연기하고 있는 데다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마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에 상장한 공모주 7개 중 6개가 상장 당일 공모가를 크게 밀도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이텍스는 상장 첫날 하락률이 38.25%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하락률 기준)을 썼으며, 토모큐브(-37.06%), 에이치이엠파마(-28.7%), 탐런토탈솔루션(-23.67%), 에어레인(-23.52%)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이들 종목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노머스의 주가 역시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더본코리아만 상장 첫날 51% 상승하며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지만, 사흘 만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장일 '반짝효과'에 그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IPO 시장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모주에 대한 초기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렸으나, 현재 공모가가 너무 높게 시작돼 추가 상승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단위 몸값을 내세운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연기한 것도 IPO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내년 1월 상장을 목표로 했던 SGI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상장 주관사와 협의,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를 내년으로 잠정 확정했다. 지난달에 5조원 몸값을 내세웠던 케이뱅크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의 실패로 상장을 내

년으로 연기했다. 여기에 토스 운영사 인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 상장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 시장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 몸값을 낮추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말 수요예측을 마친 엠오티는 공모희망가를 1만2000~1만4000원으로 책정했으나 결국 1만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에스캠 또한 희망공모가액(1만3000~1만4600원) 하단보다 낮은 1만원을 공모가로 결정했으며, 쓰리빌리언은 희망공모가(4500~6500원) 하단인 4500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IPO 시장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데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투협, 채권형 투자일임·신탁 리스크관리

잘못된 증권사 운용관행 재발 방지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효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

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왔다. /원관희 기자

한투운용, 베트남 우량주·국내 회사채 분산투자로 안정성 ↑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 대형 우량주와 국내 우량 회사채에 함께 투자하는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펀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펀드'는 재간접펀드로서 베트남 주식형 펀드인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모펀드'와 국내 회사채 펀드인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모펀드'에 각각 35%, 65% 수준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두 자산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

며, 현재 해당 펀드는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모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베트남 투자 공모펀드로, 지난 11일 에프앤가이드 기준 설정액 2696억원을 기록했다. 고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의 대형 우량주에 주로 투자하며 자체 선별한 종목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출현과 내수 소비 시장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주로 편입했다.

한국투신운용은 베트남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기업 실사를 바탕으로 펀드 구성 종목을 선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시장 상황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며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모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2.50%이며 최근 1년, 3년 및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각각 22.50%, 11.78%, 174.21%"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모펀드는 설정액이 1조7718억원 규모인 국내 최대 회사채 펀드로, 주요 투자처가 A-등급 이상의 국내 우량 크레딧 채권(회사채 및 금융채)이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나스닥100 ETF' 순자산 4兆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

'국내 최초' 미국대표 지수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 ETF'가 순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은 4조 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형 ETF 중 'TIGER 미국S&P500'에 이어 두번째로 4조원을 돌파한 사례가 됐다. 지난 7일 'TIGER 미국S&P500 ETF'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최초 순자산 5조원을 넘어선 것까지 합치면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ETF 2종의 총 순자산은 9조원에 달한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4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매수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투명·공정·화합으로 10년 기틀 구축... 위기극복 견인차 될 것”

소공연 10주년 ‘환골탈태’ 선언
송치영 회장
“소상공인 위한 전문은행 설립
대기업의 ESG 지원손길 필요”

창립 10주년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공연 10년 역사를 계승해 부족한 부분은 함께 포용하고 개선하는 화합의 자세로 연합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원팀이 돼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키워 나가겠다”면서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에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소공연은 2014년 2월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해 4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다.

송 회장은 지난 8월 29일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회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연합회기를 흔들고 있다. /소공연

자간담회에서도 “회장직을 수행한지 2개월이 됐는데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 등의 과정에서) 내부 갈등은 어느 단체나 있는 것이다. 조직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정부·훈·포장이나 연합회 관련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 구축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은행 설립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은행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또 최근 바람이 불고 있는 대기업 등의 ESG경영 지원 손길이 소상공인에게도 닿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기업의 ESG 사업들이 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상생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원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자금줄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친화형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회장은 “경제가 잘 되면 상관없지만 어려울 땐 방법이 없다. 지역별,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최저임금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그리고 전임 회장 출신인 최승재 중소기업음부즈만, 오세희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 회장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 86%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미흡”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700곳 조사
기업 93%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
불공정거래 경험사 90% “대처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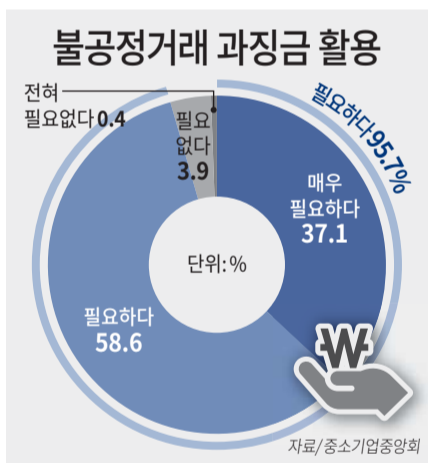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9곳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가 거둬들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10곳 중 9곳에 달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또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57.2%)하거나,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42.1%)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90.5%는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응답으로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7%)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7%)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활용’을 묻는 질문에는 95.7%가 ‘피해기업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왼쪽 2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가입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비대면 가입 지원

카카오뱅크와 맞손

중소기업중앙회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고객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재적가입자는 177만명에 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792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인천항만공-동반위, 협력사 ESG지원 맞손

협력기금 5000만원 출연

인천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항만 공공기

관 최초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어서 올해도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인천항만공사들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

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과 진단, 현장실사(컨설팅)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위위원장은 “이번 동반위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항의 ESG 경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복지지원 앞장

롯데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롯데호텔과 함께 회원사 복지 지원에 나선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11일 호텔롯데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회원사 혜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메인비즈협회에선 김명진 회장, 권영학 상근부회장 등이, 호텔롯데에선 김태홍 대표, 김상민 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메인비즈협회 전용 객실 패키지 상품 기획 ▲회원사 네트워크 활용 호텔 브랜드 및 마케팅 공동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는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 롯데호텔 서울, 월드, 부산, 울산, 제주의 객실 및 제반시설 등을 전용 특별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롯데시티호텔과 L7 호텔 바이 롯데, 롯데리조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노동현장 불법 관행 뿌리 뽑는다 체불임금·산업재해 개선 본격화

고용부, '고용노동 정책 성과·계획' 투명한 노조 운영으로 신뢰 강화
공정채용 제도로 구직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면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급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

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용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환경부, 국내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대구서 16일까지 '국제물주간'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

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환경과학원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환경부,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 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코트라, 두바이 경찰과 韓 첨단기술 협력

14일까지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 개최
한국 디지털 기술 수출 교두보 마련

두바이경찰의 디지털 치안과 보안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1일~14일까지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본부 R&D센터에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바이 경찰이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감시·감측, 딥페이크감지,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치안 등 선행 기술분야 공동 개발과 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 경찰은 앞서 지난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 최신 ICT 기술력을 가진 미국 MIT 연구센터와 첫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는 AI, 자율주행과 ITS(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에 이번 협력사업을 요청했다.

두바이 경찰은 각 분야별 협력 가능성이 높은 19개사의 한국기업을 직접 선별해 초청하고, 전시공간 일체를 제공하는 전례없는 지원을 하는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협력 가능성을



코트라가 지난 11일 두바이 경찰과 함께 개최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에서 AI·자율주행 등 혁신기술기업이 전시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높게 평가하고 있다.

UAE는 지난 4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표방하며, AI에 관한 두바이의 미래 AI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두바이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춰 상호작용형 무인경찰서인 '스마트 경찰서'를 시범 운영하고, AI 기반 기초신고상담 플랫폼인 버추얼 경찰관 '아르나(Arna)'를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디지털·스마트 분야 치안 및 보안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트라와 두바이 경찰이 공동으로 관련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했다. 노타AI, 테크트리노베이션, 에이리스, 요오인터랙티브 등 AI 기술 기반 장비·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4일간 △부스 기술 상담

△디지털분야 주제 발표 △기술피칭(IR) △브레인스토밍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또 13일에는 코트라 두바이무역관과 두바이 경찰이 향후 기업지원과 협력행사 확대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한국기업과 기관간 연구개발과 투자협력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동욱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치안 및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두바이 경찰과 한국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출테크 기업들이 미래 교통시스템 선행연구와 기술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UAE와 한국간 디지털 전자정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자수 부풀려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

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사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추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전남도, 내년 예산 12.5兆 편성... 지역소멸위기 선제 대응

올해비 2.4%↑... 증가율은 감소 장기 SOC 사업 등 세출구조 조정 내달 12일 본회의서 확정 예정

전남도가 12조54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2조2462억원보다 2974억원, 비율로는 2.4%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666억원(3.8%) 증가한 9조9622억원, 특별회계는 298억원(2.7%) 늘어난 1조1386억원, 기금은 990억원(6.4%) 줄어든 1조4428억원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본예산은 2023년 11조8099억원, 2024년 12조2461억원, 2025년 12조5436억원으로, 건축 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7%, 3.7%, 2.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장기 SOC 사업, 유사·중복·연계 반복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인구 대전환의 경우 전남도 출생기 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182억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 지원 5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

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158억원, 저소득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을 반영했고, 문화·복지·의료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3억60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1억6000만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사업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강진군은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관 증축 사업은 현 연수원 부지에 2026년까지 64실 규모의 생활관을 추가로 건립한다. 이로써 기존 2인실 40실에서 총 104실 모두를 1인실로 확대 운영이 가능해지며, 교육생 수용 능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관 증축을 통해 청렴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교육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자 청렴 교육 1번지 강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무안군

"반려동물 놀이터 놀러오세요"

무안군은 '무안으로 오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하였다.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470번지 5400㎡ 면적에 소형견 및 대형견을 구분하여 야외 놀이시설, 녹지시설을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무안에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잦았는데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기반 마련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김해시

중 다렌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

김해시는 중국 다렌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렌시는 중국 라오닝성 라오둥반도 최남단에 있는 인구 750만명, 1만3237㎢ 면적의 항구도시로 중국 동북3성 대외교역의 관문이자 물류허브도시로 1984년 국가급경제기술통도 지정된 도시이다.

'2024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와 다렌은 올 한해 동안 한·중·일 도자교류전, 아시아의 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포항시

겨울 재난 '비상체제' 돌입

포항시는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겨울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설과 한파 피해가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전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겨울철 자연 재난 집중 대책 기간'에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계획'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부산시, '3대 킬러 콘텐츠' 통해 강원도·경북 관광객 유치 박차

부산~강릉 ITX, 청량리 KTX 대비 콘텐츠로 도시·미식·야간관광 선정 4개 분야 12개 세부추진 과제 수립

부산시가 연말 동해안과 중부 내륙을 잇는 철도 개통에 대비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3대 킬러 콘텐츠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부산~강릉 ITX와 부산~청량리 KTX 개통을 대비해 관광객 유치 확대·관광수요 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개통 및 ITX-마음(최고 시속 150km) 운행으로 부산~강릉 소요 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단축되고, 청량리~부산 구간 완전 개통 및 KTX-이음(최고 시속 260km) 운행으로 부산~청량리 소

요 시간이 2시간50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데에 대한 시의 선제적인 조치다.

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회의에서 3대 킬러 콘텐츠로 ▲도심 관광 ▲미식 관광 ▲야간 관광을 선정했다.

도심 관광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마린시티와 동백섬,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송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홍보한다. 또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지역 맛집을 홍보하고 미쉐린 레스토랑 다이닝 시리즈와 같은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울러 '별바다 부산'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철도 개통과 연계한 4개 분야 12개 세부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

공정한 이용·효율적 운영 조성

경주시가 파크골프장의 공정한 이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나선다.

이번 유료화는 파크골프장의 무분별한 이용과 시설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며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고 시설 독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이용료 징수에 따라 시설 관리 및 보수, 인력 운영 등 경주시의 재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료화 대상은 알천파크골프장과 경주파크골프 1·2구장이다. 연간 이용료는 경주시민 기준 개인 12만원, 단체 10만원이며, 65세 이상 시민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1회(4시간) 이용료는 경주시민 6000원, 타지역민 1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설 관리와 운영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시는 유료화에 앞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파크골프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시에 재정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과 함께, 시설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진주시, 농식품 1490만弗 수출계약 성과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진주시는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4개 분야에서 149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개최해 온 수출상담회는 우수 농식품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수출유망 기업과 초청된 바이어들이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식품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농산물 무역회사 등 국내 52개 수출기업들이 참가해 16개



진주시는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4개 분야에서 149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 43명의 해외바이어들과 상담했다. 그 결과 신선농산물 등 수출계약 210만 달러와 농산물 가공품 등 업무협약 1280만 달러 총 149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영덕군, '소규모 관광단지' 적극 발굴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덕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침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 규모였던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에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기간에 조성 가능하며, 이러한 규모적 유연성으로 기존 시설과도 기능적 보완이 가능해졌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최저가 전략’ 연말특수 기대감? 재고 처리만... 수익성은 ‘글썸’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연말을 앞두고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유통업계가 ‘최저가’카드를 들고 나섰다.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연말특수를 앞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최저가 상품을 선보여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재고처리에 효과만 있을 뿐,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연중 최대 쇼핑 행사 ‘쓱데이’의 총 매출액이 2조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5회째를 맞은 쓱데이 역대 최대 매출로, 사전에 목표한 1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한우, 수산물 등 초특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이마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쇼핑 경험 다양화, 소비자 혜택 강화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슈퍼 역시 지난달 31일 창사 45주년을 기념한 ‘뽕큐절’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우 불고기를 10년 전 가격보다 저렴한 100g당 1000원 대(1974원)에 판매하는 등 최저가 그로서리에 초점을 맞춰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오는 14일부터는 2주간 ‘뽕큐절 어게인’으로 최저가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이달 20일까지 4주간 대규모 식품 할인전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를 전개한다. 홈플러스는 한우데이(11월1일)를 맞아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50% 할



쓱데이 기간 첫 주말 이마트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이마트

신세계그룹 ‘쓱데이’ 총매출 2조 이마트 하루매출 사상 첫 1000억

롯데마트 ‘초저가 그로서리’ 초점 내일부터 2주간 ‘뽕큐절 어게인’

홈플러스 ‘홈 메가 푸드 위크’ ‘한우데이’ 최대 50%할인 진행

이랜드리테일 전국 42개 지점서 계열사 연합 창립 44주년 감사제

인하고, 배추 1포기를 약 4000원에 선보였다. 또 삼겹살과 계란, 생굴, 전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메가급 할인가’에 판매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김스클럽, 이랜드글로벌 등 유통 계열사와 연합해 1차(6~12일)와 2차(20~26일)에 걸쳐 이랜드 창립 44주년 감사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랜드 창립 감사제는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전국 42개 지점에서 진행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다. 이번 감사제에서는 이랜드 글로벌 브랜드를 포함한 460여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1000여종의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e커머스 업계도 가격할인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는 지난 11일까지 ‘2024 그랜드 십일절’ 행사를 진행했다. 11번가에 따르면 20% 할인해 판매한 ‘메가MGC커피아이스 아메리카노’ e쿠폰은 행사 첫 날(1일) 하루에만 6만장 이상, 4일까지 누적 10만장 이상 팔리며 완판됐다.

중국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도 다음달 3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행사는 ‘초이스데이’, ‘11·11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세 가지 이벤트로 구성돼 역대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다만, 최저가에 초점을 맞춘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짝 특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을 보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할인이 당장 재고 처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매출이 증가한 만큼의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올해 ‘일품진로’ 매출 20% ↑

제품 다양화·모델 발탁 등 성과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가 국내 프리미엄 소주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100주년을 맞아 올해 다양한 일품진로 제품을 선보인 결과, 10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이같은 성장배경으로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 확대를 위해 꾸준한 신제품 출시 ▲모델 발탁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일품진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전국 단위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주인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과 고연산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랜스’를 한정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하이트진로는 소주업계 최초로 물을 타지 않고 숙성 원액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랜스 기법을 사용해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랜스’라는 명주를 탄생시켰다.

이외에도 지난해 출시한 고도수 ‘일품진로 오크43’ 인기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일품진로 오크25’를 출시하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 12년 숙성 원액을 블렌딩한 ‘일품진로 오크43’과 5년 이상 숙성원액을 블렌딩한 ‘일품진로 오크25’는 각 45도, 25도의 증류식 소주로, 스트레이트, 온더락, 하이볼 등 다양한 음용 방식에 따라 각각의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스퀘어 크리스마스 영상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신세계스퀘어

신세계스퀘어 방문객 수 20만명 돌파

공개 10일 성과... 전년비 59% 늘어

신세계스퀘어가 공개 열흘만에 방문객 수 2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1일 공개된 신세계스퀘어는 작년 연말에만 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은 신세계 미디어 파사드를 재단장한 곳이다.

신세계스퀘어는 12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 수는 59% 가량 더 많이 찾았으며 K컬처·글로벌 OTT의 3D 아트웍 등 콘텐츠가 늘자 체류 시간도 5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명동이 주는 지리적 이점과 농구장 3개 크기와 같은 압도적인 스크린 사이즈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와 몰입감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일, 점심식 당일 회현역과 명동역 일대는 신세계스퀘어의 첫 시동을 보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으며 수 많은 SNS 인증 영상을 탄생시켰다.

신세계스퀘어는 인근 상권인 명동관광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양일 간 순간 최대 인파 기준, 총 10만여명의 인파가 명동관광특구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리스마스 영상이 재생되는 오후 6시는 당일 최대 인파인 4만2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빛나 기자

CJ제일제당 ‘내수 부진’ 3분기 매출 1.1% ↓

영업익은 0.4% 소폭 증가 2764억 CJ대한통운 포함 매출 7.4조 기록

CJ제일제당은 올해 3분기 매출(대한통운 제외 기준) 4조6204억원, 영업이익 2764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0.4% 소폭 증가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은 7조4143억원의 매출(-0.4%)과 4162억원의 영업이익(+5.1%)을 기록했다.

식품사업부문은 매출 2조9721억원(-1.1%)과 영업이익 1613억원(-31.1%)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식품사업(매출 1조5690억원)에서 차질을 빚었다.

해외 식품사업은 매출 1조4031억원

을 기록하며 ‘K-푸드 신영토 확장’ 성과를 이어갔다. 올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매출은 40% 증가했다. 오세아니아 지역 매출도 24% 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비비고 만두의 대형마트 체인 판매가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북미에서는 주력 제품인 만두(+14%)와 피자(+11%)가 경쟁사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며 1위 지위를 공고히 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비고 만두’의 매출 성장률은 33%로, 같은 기간 미국 전체 만두 시장(대형마트 등 B2C 기준)의 성장률(15%)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 1조694억원(+1.1%), 영업이익 824억원(+74.9%)을 기록했다.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21%), 사료용 알지닌(+35%), 테이스트엔리치(+35%) 매출 증가가 수익

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발린, 이소류신, 히스티딘 등 스페셜티 아미노산의 매출 비중 또한 22%에 이르렀다.

사료·축산 독립법인 CJ패드&케어는 매출 5789억원과 영업이익 327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에서의 사료 판가 및 판매량 하락으로 매출은 소폭 줄었으나 사업 구조 및 생산성 개선 등을 통해 지난 분기에 이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4분기에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바이오사업부문은 프리미엄 조미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이스트엔리치’의 신규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홈플러스, 역대급 ‘와인 메가 페스타’

20일까지 위스키 할인전 동시진행

홈플러스가 연말을 겨냥해 이달 20일까지 올해 마지막 역대급 와인장터 ‘와인 메가(MEGA) 페스타’와 위스키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와인은 올해 마지막 역대급 와인 장터 ‘와인 메가 페스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일자별로 해외 유명 와인을 오프라인 50개 점포에서 한정 판매한다.

14일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보르도 와인 중 하나인 ‘샤또 팔보 2021’를 9만9900원이라는 초특가에 선

보인다. ‘몰리두커 카니발 오브 러브’, ‘몰리두커 인첸티드 패스’는 각 13만 9900원에 내놓는다. 15일에는 ‘샤또 갈롱 세귀 2021’ 등을 18만9900원에, ‘샤또 린치 바주 2021’ 등을 21만9900원에 선보인다.

같은 기간 위스키 행사도 진행한다. 한정 판매 해외 유명 위스키는 오프라인에서 일자별로 선보인다. 14일에는 ‘산토리 히비키’를 14만8000원에, ‘맥캘란 12년체리오크’를 12만 9900원, ‘맥캘란 12년더블캐스크’를 7대카드 결제 시 9만5920원에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양극화 깊어지는 게임사 성적표... 해외시장 성과에 달렸다

게임사마다 차별화 글로벌 전략 카카오게임즈, AI로 전환점 찾기 엔씨, 인력축소 등 비용 절감 박차 위메이드·넷마블, 해외로 '힐힐'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게임사들 간 격차가 두드러지며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신작 출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차이가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 간 뚜렷한 실적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먼저 3분기 실적 발표를 낸 엔씨소프트는 1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손실은 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용이 2% 증가했다. 펠어비스 역시 3분기 영업손실 92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다. 카카오게임즈는 3분기 영업익 5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1%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실적 부진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게임사와 달리 실적 호조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게임사들도 있다. 넷마블은 3분기 영업익 65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위메이드 역시 영업익 51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영업익 실적을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3분기 영업익 3244억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실적 희비 엇갈리는 게임사들 관련 이미지.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오른 성과를 이뤘다.

주목할 점은, 주요 게임사 실적 구도가 지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분기 영업익 88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실적을 받아들였다. 펠어비스도 지난 2분기 영업손실 58억원을 달성하며 적자 전환했다.

반면, 크래프톤은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이뤘다. 2분기 영업익 33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52% 증가했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게임사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둔 게임사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적 고착화를 가르는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성과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아시아 지역 매출은 전분기 569억원에서 이번 3분기 494억원으로 감소했다. 북미·유럽 지역 매출 역시 전분기 339억원에서 올해 3분기 282억원으로 줄었다.

3분기 해외 매출액 5005억원을 달성한 넷마블과 해외 매출이 전분기 대비 43% 늘어난 1668억원을 기록한 위메이드, 지속적인 투자와 인도 사업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 크래프톤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타개 방안은 단연코 글로벌 시장 공략이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실적 확대, PC·콘솔 플랫폼 확장, 장르 다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인게이지먼트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고도화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허진영 펠어비스 대표 역시 신작 '붉은사막'을 앞세워 국내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허 대표는 "신작 '붉은사막'의 마케팅 작업을 이어가며 순조롭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게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만큼 출시 가시성이 높아졌다. 연말에 있을 글로벌 게임 행사에 참가, 이용자와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비용 절감에 집중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흥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분사, 희망퇴직, 프로젝트 정리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분사 기준 인력이 현재 4000명대 중반 이상인데, 내년 중으로 3000명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다.

이어 회사에서 개발 중인 게임 '아이온2'를 언급하며 "아이온2는 생각했던 이상의 게임이다. TL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스폰형 고양이간식 냥스폰

이마트 몰리스펫샵 입점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의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펫케어'가 새로운 스폰 타입의 고양이 간식 '냥스폰'을 이마트 몰리스펫샵에서 판매한다. 냥스폰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건 이마트24 편의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냥스폰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참치와 닭 가슴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스폰형 고양이 간식이다. 스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먹일 수 있고, 고양이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맛과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이다. 2019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한 직후 현지 인기 호텔(할인잡화점)에서 품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대대적인 인기를 모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고양이 박람회 '궁디광광 캣페스타'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이후 매 행사장마다 완판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모아가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조미료 프리(Free), 착색제 제로(Zero)'의 무(無) 첨가 냥스폰을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넥슨 필두 출격완료

'지스타 2024' 최대규모 개최
오디토리움 등 벅스코 전체 활용
두 배로 확대된 전시 규모로 눈길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가 2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지스타는 게임업계 만형인 넥슨이 메인스폰서를 맡게 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 2024'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총 3281부스 규모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주최 측은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스타는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컨벤션홀 ▲오디토리움 ▲옥외전시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넥슨을 필두로 크래프톤, 넷마블, 웹젠, 펠어비스, 그라비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하이브IM 등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공개도 이어진다. 우선 넥슨은 메인 스폰서로서 300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3D 액션 RPG

G '프로젝트 오버킬'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등 신작을 공개한다.

또한 '넥슨 30주년 기념존'도 마련했다. 오는 16일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등 넥슨 대표 게임의 배경음악을 연주해 넥슨의 역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하이파이 러시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인조이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콘도콩 바콩부콩 루루핑(마



지난해 지스타2023가 열린 벅스코 전경.

법소녀 루루핑) 등 5종 게임의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덩컴 투게더와 프로젝트 아크는 지스타에서 최초 공개하며 시연 기회도 마련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어그

남성 고객들 공략 성공

'겨울 국민템'으로 인기

어그가 여성에 이어 남성 고객까지 사로잡으며 '겨울 국민템'으로 떠올랐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UGG)는 올해(1~11월 현재) 남성 고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이달에도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어그부츠는 여성들만 신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복고 열풍을 타고 가장 트렌디한 제품으로 떠오르면서 남성 고객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겸비한 신발로 어떤 착용에든 조화롭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패션에 관심 많은 2030 남성 고객들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위메이드맥스, 손면석 신임대표 선임

위메이드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 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가 이사회를 통해 손면석씨를 신임 대표이사(사친)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위메이드맥스는 이길형, 손면석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각자대표 체제 도입은 위메이드맥스의 게임 개발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장, 사업 경쟁력 확보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손면석 신임 대표는 2020년 게임 개발사 매드엔진을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둔 '나이트 크로우' 계



발을 이끌어왔다. 앞으로 손 대표는 위메이드맥스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신규 지식재산권(IP) 확보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손 대표는 매드엔진의 대표직도 유지하며 현재 매드엔진에서 개발 중인 신작 출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위메이드맥스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매드엔진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동국제약, 미간 주름개선 '비에녹스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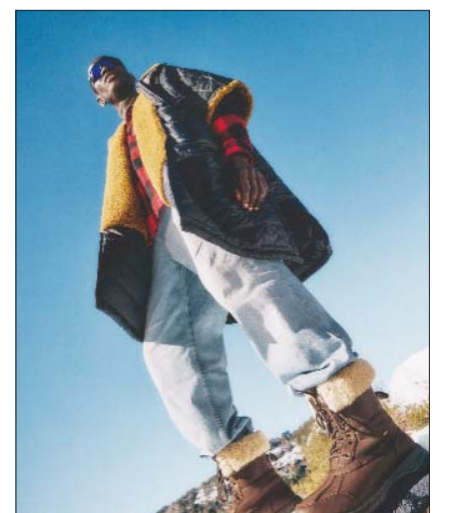
동국제약이 보톨리눔 특신제제 '비에녹스주'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달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톨리눔 특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대처 발굴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했다. 이어 10월 30일, '비에녹스주'에 대한 시판 전 품질검증 단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비에녹스주는 눈썹주름근과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중에서 중등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

능 및 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감압 건조 방식을 채택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9월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 'dkma'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13년간 꾸준히 사용되어 온 HA 필러 '벨라스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HA 필러 '케이블린', 스킨부스터 '다하이브', 창상피복재 '마데카MD크림·로션'을 출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어그 '타스만 웨더 하이브리드', '뷰트 바머' 착용 컷. /신세계인터내셔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오픈기념 '화요' 이벤트

프리미엄 숙성한우·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은
이자카야나무의 패밀리브랜드입니다.

지금, 아래 QR코드를 찍고 나무가든 **회원가입** 하시면
'화요25' 1병을 드립니다.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 고기손님 한정(식사손님 제외) 🍷 테이블 당 1회 🍷 직원 호출 후 진행

문의 02-785-8883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BNK금융, '태화강 국가정원 맨발걷기길' 재개장

BNK금융그룹은 울산 태화강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맨발걷기길' 및 그늘막 재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광역시 시장,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키움증권, 대학생 50명 장학증서 수여... 1억 전달

키움증권은 대학생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1억원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왼쪽 첫번째)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한 장학생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키움증권



아시아나, 대형항공부문 고객만족도 1위

아시아나항공이 2024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8년 연속 '대형 항공 부문(FSC)' 1위 항공사로 선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NCSI 시상식에서 대형 항공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서비스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거레소, 시니어 위한 디지털금융 교육 후원

한국거레소는 부산 지역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후원금 3500만원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시니어들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레소



한국타이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참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12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주관 '제16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직접 김장 재료 손질부터 담그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담근 김치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현대차-울산시, 친환경 물류 등 수소생태계 조성 맞손

울산 수소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이동석 대표 "지속적인 협력 모색"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와 손잡고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서며 울산을 수소 친화적 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모은다.

현대차는 12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울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와 울산시가 수소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

현대차와 울산시는 이번 협약에



현대차는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울산시와 '울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 김두겸 울산시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따라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공급, 유통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소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한다.

또 울산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3기' 공모선

정과 연계해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랙터 도입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울산시는 화물용 수소 트랙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울산을 기점으로 하는 다양한 물류 노선에 3대의 실증 차량을 운행해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이 수소 친화적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 등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배스킨라빈스, 소방관 가족에 달콤한 추억 선물

'패밀리 도넛 프로그램' 운영 아이스크림 관련 체험 활동 진행

SPC 배스킨라빈스가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이하워크샵)' 매장에서 소방관 가족을 초청해 '패밀리 도넛'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스킨라빈스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을 신청받고, 자녀 동반 총 32팀(64명)을 선정해 워크샵 매장(서울 도곡동 소재)에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9일과 10일 각각 제공했다.

'패밀리 도넛' 프로그램은 ▲브랜드 스토리텔러 닥터가 아이스크림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 매장의 패밀리 도넛 프로그램에 초청된 소방 공무원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 배스킨라빈스

림과 배스킨라빈스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아이스크림 도넛' ▲상상력을 발휘해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기획하는 '아이스크림 디자인' ▲자신이 디자인한 아이스크림을 직접 시식해 보는 '아이스크림 맛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좋은 행사를 마련해 준 배스킨라빈스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KT&G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을 획득했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사내 독서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사옥 내에 대내외의 오픈형 도서관인 '상상마루'를 운영중이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서 제공과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도서 정보 소개, 구독형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등 회사에서도 독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CEO가 구성원들에게 직접 도서를 추천해주는 'CEO 추천 도서' 프로그램을 비롯한 '서평 대회', '독서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기아 노사는 1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2024년 사랑나누기 캠페인'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기아

기아 노사, 사회복지단체에 '레이' 증정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아 노사는 1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2024년 사랑나누기 캠페인'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사단법인 희망씨, 사단법인 파주천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등 전국 15개 사회복지 단체에 '레이' 차량 15대와 부산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 단체와 학교는 각각 전달받은 차량과 장학금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두나무 "보안전문가 도전하세요"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 모집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두나무는 업사이드 아카데미 참가자 전원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 ▲웹3 및 블록체인 보안 교육 ▲실무 연계 교육 등의 커리큘럼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기 모집 기한은 내달 2일 오후 5시로, 참가 희망자는 업사이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인사

-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경윤호
- ◆LX인터내셔널 ◇전무 ▲강성철 ◇상무 ▲최민 ◇이사 ▲이상철 ▲김성식 ▲김충완 ▲노재원 ▲이영주
- ◆코오롱그룹 ◇대표이사 내정 및 승진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대표이사 사장 허성
- ◆CNB미디어 ◇CNB뉴스 ▲편집국장 부국장 이성호 ◇CNB저널 ▲편집국장 정익식 ▲전략본부장 안용호
- ◆디엑스앤브이엑스 ◇이사 ▲박도영

부음

- ▲ 권정숙씨 별세, 이재춘(인간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 보존회장, 전 안동문화원장)씨 부인상, 이상준(데일리안 편집국장)·이병준(세명대 기획실장)·이호경씨 모친상= 11일 오후 8시 52분, 안동병원 장례식장 특 10호실, 발인 14일. 054-840-0030
- ▲ 송석렬씨 별세, 유병홍·유병우·유병사·유병희·유형직씨 모친상, 강동훈(전 BBS 방송본부장·전 아시아투데이 총괄상무이사)씨 장모상= 11일 오후 8시 30분, 우리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041-664-4449

아이들형 - 신성록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加사령관, HD현대重 잠수함 건조 역량 확인

앵거스 탐시 해군사령관, 울산본사 방문 캐나다, 60兆 규모 잠수함 12척 도입 추진 "국익 도움되도록 방산사업 최선 다할 것"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해군의 최고위 관계자가 HD현대중공업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해군 중장)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이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진행 중이다. 향후 러시아, 중국 등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의 이 잠수함 발주 규모는 60조원 정도로 국내 조선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창정비 중인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을 살펴보고, 잠수함 건조 시설과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보며 HD현대중공업의 우수한 잠수함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도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해군 중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합정 건조 현장을 방문해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건조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입 사업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양국간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의 협력방안도 활발히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획득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방산사업은 국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및 관련 업계와 해외 방산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관련 기술력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적기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상깊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해군이 주관하는 '딥 블루 포럼(Dep Blue Forum)'에 참가해 C PSP 사업에 대한 전략과 잠수함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너희만 우회하나, 나도 할 테다



기자 수첩

김 서 현
(산업부)

"튀르키예에서 케냐로 이민했는데 괜찮으려나 몰라." 언뜻 이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유튜브 이민'에 관한 대화다. 유튜브 이민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이용해 저렴한 국가 IP로 결제해 돈을 아끼는 꼼수를 뜻한다. 즉, "나 인도인이 됐어"라는 말은 인도 주소와 IP를 사용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했다는 의미다. 주로 인도, 튀르키예, 케냐 등이 인기국가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난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유튜브 난민은 우회 결제를 시도하다 구글에 적발돼 멤버십이 중단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결제 카드 번호로 색출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경고에도 거듭 한국 국적 신용카드를 이민을 하다가(?) 아예 구글 계정 자체가 잠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 난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전과 없이(?) 유튜브 이민을 하는 방법이 요즘 인기다.

유튜브 이민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유튜브 난민의 근본적 원인은 구글이 국가별 생활·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과 허술한 검증 절차 그리고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나 유난히 유튜브 이민은 별 죄책감 없이 이뤄진다. 도의적으로 잘못 된 일이지만 유튜브 난민들은 이민을 반복한다. 도리어 당당하다. 유튜브 난민 A씨는 "구글도 세금 우회하면서 왜 난 안 되냐?"라고 책상을 툭 치면서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A씨가 불만을 터뜨린 것처럼 실제로 구글은 유튜브 이민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 회피를 자행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내 주요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처리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구글코리아는 155억 원의 법인세만 냈다. 그리고 네이버는 구글코리아 대비 30배 많은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런 세금 우회로 급기야 구글의 이름을 붙인 '구글세(Google Tax)'라는 세제 정책이 G20에서 논의 돼 시행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특정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을 아끼려는 마음은 유튜브 난민이나 구글이나 똑같은 셈이다. 도덕적 해이도. /seoh@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10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48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60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어 대니 갈등. 72년생 운명이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84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37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49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정이 필요. 6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73년생 손끝에 뭉뚱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85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38년생 생물이 마르면 고기가 다투어서 흉탕물로 변하니. 50년생 자신을 응원하라. 62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서류를 좀 더 살펴봐라. 74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86년생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39년생 불편해도 짜증을 내지 말고 견뎌봐라. 51년생 미흡하다고 느끼면 소통을 해서. 63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75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할 것임. 87년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사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



40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52년생 일단 새로운 일에 도전 해라. 64년생 돌을 얻기 위해 하나는 양보. 7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8년생 변화하는 연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4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53년생 생선 먹을 때 가시를 조심해서. 65년생 투자 유혹이 많은 날이니 계산과 절제가 필요. 77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생활에 득이 된다. 89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옷치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42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끝내인데. 54년생 나의 인생이니 공부해야 누리며 산다. 6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78년생 마음이 움직여도 즐겁게 지내도록 노력. 90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43년생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신경 쓰라. 55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67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내일로. 79년생 배우자가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될 테니 가정은 이루도록. 91년생 여기저기 다녀본들 무슨 소용.



44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다. 56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라. 68년생 부모님의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80년생 실수가 있으니 음주는 주의하자. 92년생 새의 큰날개를 타고 비상하는 것과 같이 발전.



45년생 피곤이 쉬 풀리지 않는 날. 57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이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69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81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음. 93년생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다.



46년생 마음이 편해아름도 편하다. 58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70년생 기량 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낭비. 82년생 새 숲은 새 부대에 담으려 했듯 변화를 추구하라. 94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봐라.



47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 5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듯하나 자중할 때. 71년생 좋은 결과는 시작부터 만사 불어트므로. 83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 95년생 다른 것을 욕심내다가 있는 돈마저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



김상회의四季

언제나 시월 상달 기도

선조들은 해마다 시월이면 나라의 나라 차원에서 마을은 동리 차원에서 각 가정은 집집마다 온 나라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상달 기도를 올렸다. 기운이 상서롭고 여여한 때를 때에 맞추어 기운을 모으는 것이다. 어떤 분은 해마다 같은 기도를 매번 올리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즉 기도의 효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 해마다 생일은 왜 챙기냐고. 자연에 수능 하는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일까, 어리석어서 그리했을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에너지를 중히 여긴다.

우리가 늘 말하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무슨 뜻인가? 기분(氣分)은 말 그대로 기의 분포 즉 에너지의 분포이기도 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의 흐름이다. 그 기분이라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항상 같지가 않다. 변덕스럽기도 마음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그 마음을 바르고 순일하게 하고 힘있게 하며 긍정적인 기운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마음을 모아 형식과 행위를 통해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수행이라고도 한다.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잘 갈무리하기 위함이다. 나를 살린다는 것은 마음을 살리는 것과 동의어다. 마음은 또한 몸과 상호작용하므로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진다. 그 마음을 갈무리하는데 지구상 북반구에서 가장 그 기운이 순일할 때가 음력 시월 즈음이다. 하늘은 맑고 청명하여 인간의 뜻과 마음이 하늘과 맞닿기 좋은 때고 땅은 만물을 키워내고 휴지기로 들어가기 직전의 부드러움으로 풍요롭다. 바쁜 농사일도 거의 끝내고 시월 상달 고사를 올리고 그 떡들을 서로 돌리면서 한 해를 무탈하게 지낸 것을 고마워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6	1	7	8	2	9	2
9	7	1	8	2	2	8	9	6
2	7	8	9	6	9	1	7	8
2	9	7	2	1	8	6	8	9
8	8	2	2	9	6	7	1	9
6	1	9	7	8	9	8	2	2
1	6	2	9	9	7	9	2	8
8	9	9	6	2	1	2	8	7
7	2	8	8	9	2	9	6	1

2	9	8	8	1	6	7	9	2
1	2	9	2	7	9	6	8	8
8	6	7	8	9	2	2	9	1
9	7	6	1	9	8	2	2	8
8	1	2	6	2	8	9	7	9
9	8	2	9	2	7	1	8	6
7	8	8	2	6	9	9	1	2
6	9	1	9	8	2	8	2	7
2	2	9	7	8	1	8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韓, 컴퓨터·정보 소양 '세계 최고' 수업사용 비율은 국제 평균 이하

ICT 사용 학습정도 질문에 '53점' 과제 수행시 자아효능감이 낮아 "디지털기 학습 경험 제공해야"

(2023 ICILS 대한민국 평균점수 및 순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컴퓨터·정보소양		컴퓨팅 사고력	
	평균점수	순위	평균점수	순위
한국	540	1	537	2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사용비율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도 국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가 주관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를 발표했다.

ICILS는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CIL)과 컴퓨팅 사고력(CT)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중2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4개국 학생 13만2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컴퓨터·정보 소양 점수 540점...34개국 중 '1위'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점수는 540점으로 참여국 중 1위에 올랐다. 참여국 평균 점수는 476점이다.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53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성취수준은 최상위를 의미하는 '4수

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성취수준은 ▲1수준(기초) ▲2수준(보통) ▲3수준(우수) ▲4수준(최상위) 등 총 4개로 구분된다.

1수준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작았다.

◆교과 수업 중 ICT 사용 및 학생 자아 효능감 '평균 하회'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맥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책임있는 ICT 사용에 대한 학습 정도'를 묻는 질문에 '53점'을 나타내며 국제 평균(50점)보다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질문인 'ICT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정도'는 51점으로, 국제 평균(50점)을 상회했다.

반면, 수업 중 ICT 사용 비율이나 ICT 사용 관련 자아효능감은 '평균 이

하'를 나타냈다. '대부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9개 교과 영역 중 '창작·예술'과 '정보' 교과에서만 국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국어(대한민국 14, 국제 평균 27) ▲영어 또는 제2외국어(19, 27) ▲수학(16, 23) ▲과학(17, 28) 등 교과에서는 국제 평균보다 낮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ICT를 사용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아효능감도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문서 생성 및 편집,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47점으로, 국제 평균(50점)보다 3점 낮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은 국제 최상위 수준인 반면, ICT 사용 비율이 낮고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이 낮았는데, 디지털 기기를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15~16일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열린다

현장에서 수시2차 원서 무료 접수

2025학년도 수시2차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오는 15, 16일 이틀간 경기 성남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65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수험생들은 관심 대학 입시담당자와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대학들이 현장에서 무료로 수시2차 원서접수를 받는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참가신청 후 방문하는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스탬프 미션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맥스,



애플워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온라인 상담신청 및 사전 참가신청은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전예약을 놓쳤다면, 당일 현장등록 및 입장도 가능하다.

한편, '2025학년도 수시2차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는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에서 900m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되며, 15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기간은 8일에서 22일까지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베트남서 4500만弗 수출상담 실적

K-뷰티 엑스포 2024

도내 기업 참가비 지원... 통역 서비스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7~9일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를 개최해 45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 (2024 Saigon Beauty Show)와 동시에 열려 K-뷰티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베트남에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K-뷰티 엑스포에는 경기도 뷰티 기업 60개사 60부스가 참여했다.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원료, 피트니스, 스파, 기능성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을 6496명의 베트남 참가객에게 선보였다.

경기도와 킨텍스는 도내 참가기업에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 현장 /경기도

부스참가비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 230개 사의 구매자와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담액 45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성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경기도 뷰티기업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은 관심과 호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뷰티 강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 시범 운영

사업 유형, 추진 현황 등 확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개 예정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서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면서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사업 유형별 규모와 추

진 현황 등 분산된 세부 사업 정보를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모으고 유형을 통일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대상 구역이 표시된다.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그밖에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15일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난방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쪽방촌 주민에게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을 지원하고, 밤 추위를 피할 수 있

는 대피소인 '동행 목욕탕'을 확대 운영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 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1만5000여 세대에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3일 (수)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8 ~ 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0 | 해질 / 17:23

지역별 날씨: 연천 4/18, 동두천 5/19, 가평 4/18, 파주 4/18, 서울 8/19, 양평 6/18, 수원 9/19, 용인 9/19, 평택 7/20, 백령도 10/16, 인천 8/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 기술의존 줄이자”...유럽 검색엔진들 합작법인 설립
▲돈 통 놓은 트레비 분수 이번엔 '이것' 설치...관광객 줄지어 /사진 뉴시스

▲중국 해경선 편대, 남중국해 분쟁암초 인근서 순찰 항행
▲'소수여당' 일본 이시바 정권에 당친 3개 관문...예산·정치개혁·국회운영



▲베트남, 테무·쉬인에 최후통첩... 등 록하지 않으면 차단
▲에르도안 “이스라엘 대가 치러야”...‘무기금수·무역 단절’ 동참 촉구 /사진 뉴시스



유통업계 연말특수 기대감? 수익성은 '글썸' 너



Life

양극화 깊어지는 게임사 성적표 해외 성과 '핵심' L2



단비 부르고 홍수 막는 '영산' 올라 힐링 충전해볼까

〈靈山〉

♥ 되살아나는 서울

강서구 '우장산공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과 화곡동의 경계에는 허파처럼 생긴 '우장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도를 펼쳐 놓고 가운데 있는 우장산로를 중심선으로 삼아 반을 접는다고 해서 두 개의 녹지가 데칼코마니처럼 꼭 맞게 겹치는 건 아니다. 녹골의 보호를 받는 장기(臟器) 폐처럼 한쪽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허파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우장산공원은 남쪽이 북쪽보다 크다.

◆기우제 열면 반드시 비 내려

지난 11일 우장산공원을 방문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강서05'번 마을버스를 타고 6개 정류장을 이동, '강서구민회관' 정거장에서 하차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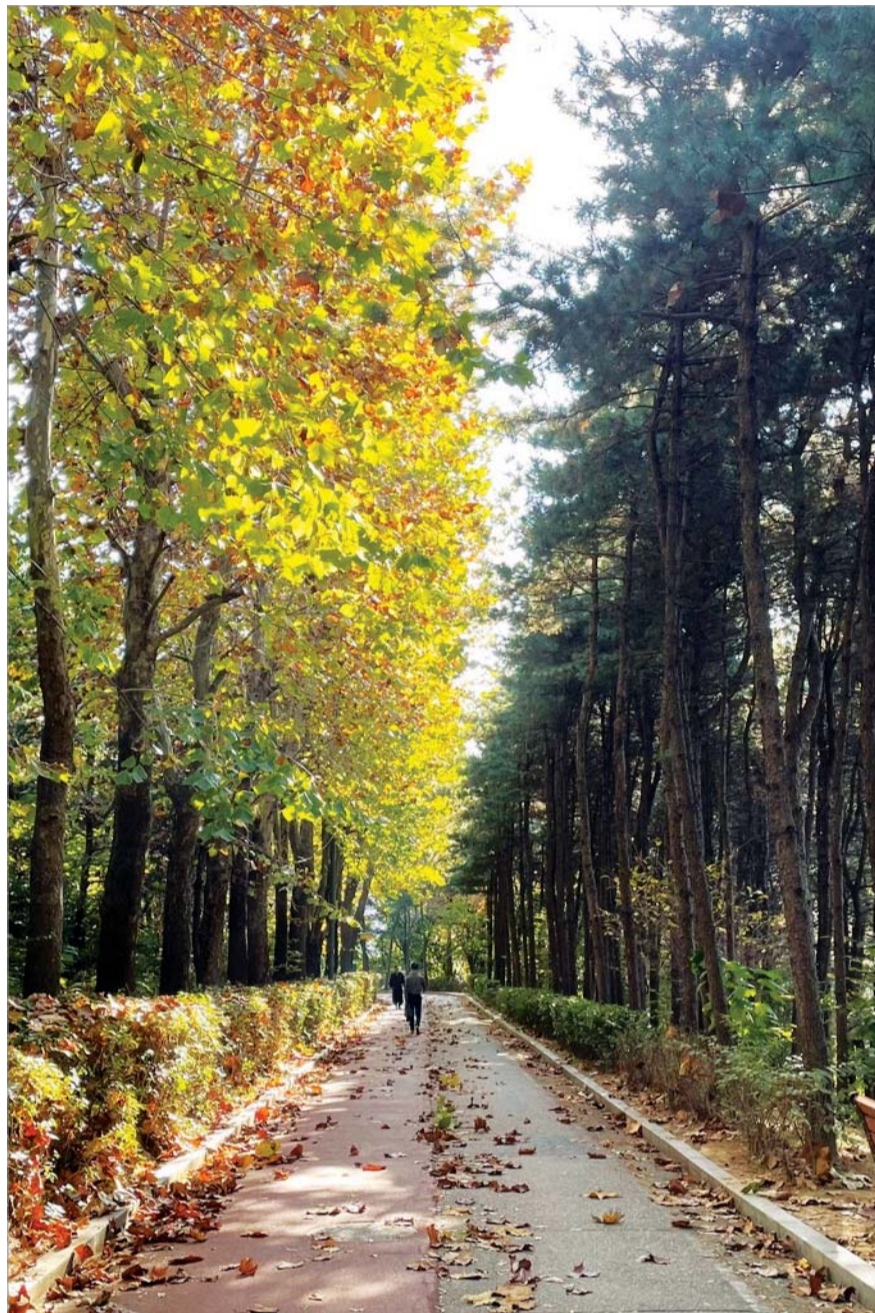
우장산은 땅이 기름져 비가 잘되는 마을에서 유래된 동명을 가진 '화곡동'의 진산으로, 두 개의 봉우리로 형성됐다. 북쪽 산은 검두산·검덕산·검지산·검동피로, 남쪽 산은 원당산·남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현 서울역사편찬원)가 펴낸 '서울의 산'에 의하면, 산명은 검두산과 원당산 두 곳에 기우제단을 차려놓고 천신께 비를 내려달라고 빌 때 제주(祭主·제사의 주장이 되는 상제)가 세번째 기우제를 지내는 날에는 언제나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 이날 참가자 모두가 우장(雨裝)을 쓰고 산을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우장은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쓰는 우산, 갈사(笠)나 짚·피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인 도롱이 등을 이르는 말이다. 검두산과 원당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서부터 두 산을 합쳐 우장산으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구전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비가 올 확률이 100%인 '인디언 기우제' 이야기다. 인디언들이 대단한 신통력을 지녀서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 이들이 기우제를 치르면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쏟아졌다고.

우장산은 1980년대 중후반 시민공원으로 조성돼 1987년 12월 30일 개원했다. 우장산공원 면적은 35만9435㎡에



11일 오후 한 시민이 우장산공원에 펼쳐진 가로수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기우제 지내면 항상 비 내려 '우장' 이름 붙여 매년 10월 초하루, 풍년 기원하는 산신제 지내 1980년대 시민공원 조성, 힐링체험공간 갖춰 정상에는 봉사정신 새긴 '새마을 지도자 탑'도

달한다. 공원 남쪽을 먼저 둘러보기 위해 원당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서구민회관에서 싱그러운 낙엽 향을 따라 걷다 보면 '우장산 유아숲체험원'이 나온다. 유아숲체험원에는 ▲경사진 나무와 밧줄 위를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하는 '까치둥지 오르기' ▲흔들거리는 나무다리를 건너고 밧줄을 오르며 모험심을 기르는 '꿈틀꿈틀 놀이터' ▲숲속놀이의 안전 규칙, 놀이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 속에서 야외 학습을 하는 '도란도란 숲속교실' 등의 다채로운 놀이 공간이 마련됐다. 이날 어린이 한 명 없이 쓸쓸한 유아숲체험원을 보며 한국이 저출생 국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장산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만 있는 건 아니다. 산을 좀 더 오르면 작은 통나무집처럼 생긴 '우장근린공원 힐링체험센터'가 나온다. 센터에서는 오감숲산책, 숲가페 컵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원예 테라피, 피톤치드 호흡을 해보는 '오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나무 건물 옆엔 맨발로 걷는 황톳길과 함께 세족장과 족욕장도 갖춰졌다.

◆새마을운동 흔적 남은 곳

우장산공원 남쪽을 찬찬히 둘러본 뒤 북쪽으로 길을 다시 잡았다. 우장산약수터에서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을 배경으로 멋들어진 은행나무 사진을 한 장 찍은 뒤 산책로를 걸었다. 길은 공원 관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회색 도로와 폭신해서 걷기 좋은 붉은 탄성 포장도로 두 개로 나뉘었다. 좌측 통행이 익숙한 어르신과, 우측 통행이 친숙한 젊은이들이 마주보며 걸어오다가 스텝이 꼬여 엉거주춤 당황하는 모습을 재밌게 구경하며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우장산 정상에는 회백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새마을 지도자 탑'이 세워져 있었다.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 따르면, 이 탑은 1986년 8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가 새마을 운동의 영속적인 발전과 새마을 지도자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표상하기 위해 건립했다. 당시 전국 23만 새마을 지도자의 성금으로 착공 8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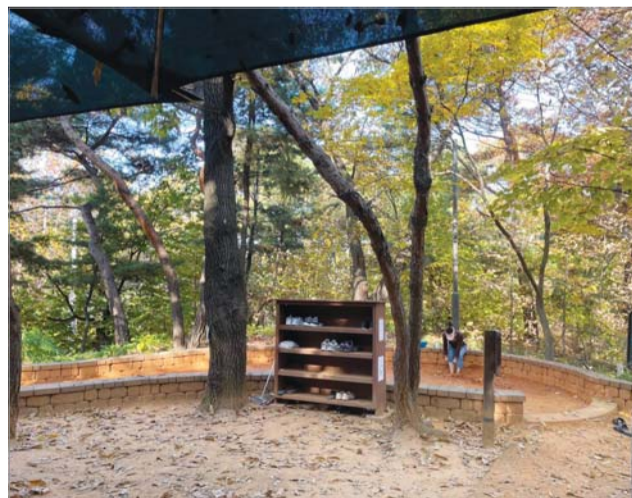
400평의 부지 위에 직경 40m의 원형 바다에 세워진 높이 15m, 13층짜리 화강석 탑으로, 탑신은 당시 전국 9개도와 1개 특별시, 3개 직할시를 의미한다.

8각형 바다에 깔린 231개의 돌은 전국 시, 군, 구의 향토석을 이용한 것으로 각 지역에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며, 탑신 중 두 개가 수직으로 결합된 형태는 도시와 농촌 새마을 운동 역군들의 협동 정신을 나타낸다고.

'서울의 산'을 집필한 나각순 박사는 "우장산 서쪽 기슭 발산2동 문화유씨 집성촌은 조선 숙종 때 좌의정을 지낸 유담후가 개화동 쪽에서 새로운 농토를 찾아 정착한 곳"이라며 "문화유씨 집성촌은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곳의 지세에 대해 우장산과 앞의 원당평야, 그리고 한강이 마을 앞 먼 곳에서 동류서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연유로 내발산동 문화유씨 주민들은 우장산을 땀감도 얻고 홍수도 예방해주는 영산으로 여겨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풍년과 동네의 안녕·번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곤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한 시민이 우장산공원 내 황톳길에서 황톳길 체험을 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의 봉사 정신이 새겨진 '새마을 지도자 탑'이 세워져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6일만에 412억원 계약... 펄펄 끓는 야구 FA시장
▲농구대표팀 이정현·하윤기 부상...문유현·신승민, 아시안컵 뒀다 /사진 뉴시스

▲윤소영·박종해 듀오 콘서트...예술의전당 앙상블시리즈
▲논산독서협회, 인문 감성 토크 콘서트...
"책 중요성 깨달아"



▲강등 위기 전북 살린 권창훈... K리그 137라운드 MVP
▲루시드폴·페퍼톤스, 제주도 국가유산 여행 공개 /사진 뉴시스